

아이콘과 코드 - 동양미학의 범주 2강

#3. 전신(傳神)

+ 고개지(顧愷之: 晉)가 그린 배해(裴楷)의 초상화

+ 이형사신(以形寫神): 단순한 사실적 묘사(模寫)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그 외형의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의 내면세계를 나타낸다는 것.

+ 전신(傳神): 정신세계를 드러낸다는 말로, 인물초상화의 근본 취지. 인물이나 사물이나 자연세계의 내재적 정신 본질을 표현함.

+ 눈[目]에 대한 묘사

“고개지가 인물을 그리는데 있어 쉬이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기에 누군가 그 까닭을 물었다. 답하기가 이렇다. 형체에 대한 절절한 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만으로는 대상을 진정으로 밝혔다고 할 수 없으니, 그 진실한 속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이것[눈]의 묘사에 달린 것이다.”

“愷之每畫人成，或數年不點目精。人問其故，答曰，四體妍蚩，本無闕少於妙處。傳神寫照，正在阿堵中。”(晉書·文苑傳·顧愷之)

+ “신(神)”의 개념:

첫째,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신적 본질을 말한다.

둘째, 작가의 정신을 가리키는데, 흔히 창작할 때의 정신의 자유로운 초월을 의미한다.

셋째, 작품의 내재적 본질을 가리킨다.

+ 전신(傳神)이란 창작론은 인물초상화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점차 산수화, 문인화,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예에까지 발전.

+ 흉중구학(胸中丘壑): 덕성(德性)과 어우러진 마음속의 이상향(理想郷)

#4. 비덕(比德)

+ 예술을 모방하는 자연, 예술을 모방하는 삶

“사물은 우리가 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,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 온 예술에 의존한다.

지금 사람들이 안개를 보는 것은 거기에 안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, 시인이나 화가들이 그 안개 효과의 신비스런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.”

(Oscar Wilde, *Intentions*)

+ “이물비덕(以物比德)” 심미체험의 세 단계

- 1) 유인급물(由人及物): 심미주체는 자신의 덕성과 유사성을 지닌 자연물의 物性에 미적 관심을 갖게 된다.
- 2) 역인역물(亦人亦物): 그 物性은 의인화 과정을 겪는다.
- 3) 유물급인(由物及人): 의인화되어진 物性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

라 다시 인간덕성에 비유되어야 한다.

마지막 단계에서 德性이 그 物性으로부터 비유되어 나온다는 점으로부터 예술적 효과는 일어나고 결국 이로써 교화적 기능이 수행되는 것이다. 그리하여 더욱 도덕적으로 고취된 심미주체는 다시 그 덕성의 수준에 맞는 심미대상을 찾게 된다.

→ 대나무 그림을 예로 들어 보자. 첫 단계로, 절개가 있는 君子는 곧은 마디라는 물성을 지닌 대나무에 미적 관심을 가지고 이에 그것을 회화체재로 삼는다. 두 번째 단계로, 그림 속에서 그 대나무는 높은 절개를 보여주는, 군자 자신의 반영물이 된다. 실물로서의 대나무는 소멸되고 자신의 정신세계를 나타내주는 상징으로서의 대나무가 탄생한 것이다. 세 번째 단계에서, 감상자는 이 대나무 그림을 보고 미술적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절개라는 "가치"를 읽는다. 이제 대나무에 의해 도덕적으로 강화된 심미주체는 다시 대나무로부터 더 큰 미감을 느끼게 된다. 이러한 순환이 지속되면 대나무는 특정한 덕성의 상징이 되어버리고, 사람들은 이제 직접 대나무로써 소통한다. 따라서 이 심미체험의 핵심어는 궁극적으로 절개가 아니라 바로 대나무(형식)이다.

+ "형상사유[名—형상]→도덕적 이성사유[名—역할]→형상사유[名—형상]"의 순환구조

+ "君子"像의 전화(轉化) — 인물전형(人物典型)에서 심미전형(審美典型)으로